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연장

지방으로 본사·공장을 옮기는 수도권 기업에 주어지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2005년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올해 말로 끝나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05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계와 청와대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산업자원부 등이 이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 조치가 3년간 연장되면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검토해 온 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말까지 수도권 밀집지역(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해 온 기업이 본점이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전일로부터 6년 동안은 법인세의 100%, 이후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를 깎아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수도권 밀집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해 왔다.

경기북부 중소기업지원 미흡

경기북부 지역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현재 경기지역 전체 중소기업 2만8,700여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900여개의 중소기업이 위치해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지원정책에서 소외되

고 있다. 인쇄업체도 300여개사에 이른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도내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및 경기북부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기업들은 경기남부지역 기업들에 비해 경영 및 지원시책 활용에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은 입을 모아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은 2~3년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아직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2청사 기구보강과 인력증원 및 경기중기청 북부출장소 설립 등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5일제근무 중기에 세제지원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현행 5%)을 2007년까지 10%로 높이고 총 1조5천억원의 시설자금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또 주5일근무 중소기업에 일정 비율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5일 근로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논의했

다. 전 부총리는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추가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신규인력 고용시 인건비의 최대 50%까지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부도 업체수 12년만에 최저

부도 업체수가 12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부도업체 대비 신설법인의 배율은 24.8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국내경기가 안정된 회복추세에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당좌거래가 정지된 부도업체수는 311개로 전달(331개)에 비해 20개 줄었다.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평균 부도업체수는 12.4개로 90년 5월의 11.5개 이후 가장 낮았다. 부도업체수는 서울의 경우 121개로 전월대비 12개 줄었고 지방은 190개로 8개 감소했다.

영업일 평균 부도업체수는 작년 평균 17.7개에서 올 들어 1월 14.8개, 2월 13.6개, 3월 13.2개, 4월 12.4개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달 8대

도시의 신설법인은 3,623개로 전달(3천757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부도업체(146개) 대비 신설법인 배율은 24.8에 이르렀다. 이는 1개 업체가 부도를 내더라도 24.8개의 신설법인이 새로 생기는 것으로 경기 회복으로 산업생산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은은 풀이했다.

한편 전국 어음부도율은 0.08%로 전월(0.11%)에 비해 0.03%포인트 하락, 지난 1월(0.06%), 2월(0.08%)에 이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은행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국민은행은 중소기업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금난 완화를 위한 여신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또 중소기업 대출 활성

화를 위해 저당권설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저당권 설정비 면제 서비스는 옛 국민·주택은행의 기업금융전담점포(RM지점)에서 시행된다.

면제 대상은 중소기업의 타행 대환여신으로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기업자금여신으로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신규여신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선순위 저당권 말소비용을 포함해 부동산 종류에 제한없이 모든 대출이 면제대상에 포함되고 일부 신용계좌도 면제혜택을 받는다.

문화진흥원, 출판만화제작 등 지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캐릭터·애니메이션·출판만화·뉴미디어 등 4개 분야 파일럿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해 총 3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장비공급 및 이용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8월부터 공동제작실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먼저 업체설문 조사를 통해 필요한 장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차심사와 자문위원단 최종 검수과정을 거친 후 장

비공급업체를 선정, 27억원 규모의 장비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공동제작실에

입주할 15개 업체 선정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4개 관련 분야 파일럿 콘텐츠 개발을 진행중이거나 기획안을 마련한 업체들이 이 제작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은 6개월 내외이다.

중소기업인 헌혈캠페인 가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사회전반의 사랑 나눔 실천을 위하여 중소기업인 한마음·한사랑 헌혈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인 한마음 한 뜻을 담은 헌혈운

동의 실천을 통하여 사회전반의 나눔의 사랑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리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춧돌로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